

천년고도에서 미래 천년 가꾸는 '교육 도량'

③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2012년 고용노동부 창조캠퍼스 구축 사업 선정” “2012년 고용노동부 대학청년 고용센터 사업선정” “환경부 선정 저탄소 그린캠퍼스 사업 추진대학” “정보통신공학부 2011년 공학교육인증 획득” “12년 연속 간호학과 간호사국가시험 100% 합격” “한국 실용글쓰기 검정시험 66명 합격” 등등.

오래전 한 시인은 진흙이 묻어나는 3월의 캠퍼스에서 ‘경주공 소리’를 듣고 감격했다. 아침저녁으로 땀-땀-땀-땀 소리가 들리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이하 경주캠퍼스)에서는 봄바람에 펄럭이는 많은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선정, 인증 획득, 합격 등의 낭보를 알리는 문구들이 아래로 퍼지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더없이 상쾌하여 산수유나무도 노란 웃음을 피워 내고 있다. 집안분위기는 마당에서부터 느껴지는 법,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의 정열과 학교당국의 열정이 경주캠퍼스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퍼스 사업 추진 대학으로 선정되어 생태와 녹색환경 캠퍼스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학교를 둘러싼 산이 백로 서식지인 경주캠퍼스는 자연과 조화되는 캠퍼스환경을 조성할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에코타운, 습지공원, 테라피 공원, 조류관찰 데크, 탐방로 조성 등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무엇보다 경주캠퍼스는 ‘천년 고도 경주’라는 지리적 역사 문화적 배경을 심분 활용하여 어느 대학도 갖지 못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그 실례가 ‘IPTV 기반 문화관광 글로벌 방송 구축 사업’이다. 이는 지식경제부, 경상북도와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이

‘잘 가르치는 대학’(ACE) ‘그린캠퍼스 추진 대학’ 등 선정 비전 2020 선포, 첫째 목표 초과 ‘불교와 경주’ 성장 동력 조건

사업의 궁극은 방송, 통신, IT, 콘텐츠, 문화관광 산업을 융합해 동반 성장 하는 것. 쌍방향 미디어 시스템으로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통로를 경주캠퍼스가 열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총사업비 1847억 원 규모의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사업에도 선정되어 지난해 30억 원을 수주했고 5년 후 결실을 맺게 된다. 실감 미디어란 3D 혹은 4D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개념 미디어 산업이다.

경주캠퍼스의 국제화는 ‘창의적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주목할 것은 작년 5월 대만 국립고용사범대학에 이어 8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세크라멘토와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협약한 것이다. 경주캠퍼스 학생이 본교에서 2년 공부하고 협약한 대학에서 2년 공부하면 두 학교에서 동시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

올해로 개교 34년을 맞은 경주캠퍼스는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도약하고 있다. 도약의 핵심에너지는 1년 전 김영종 총장이 취임하면서 선포한 ‘비전 2020’. 특성화, 국제화, 융합화라는 3대 발전전략을 축으로 하는 ‘비전 2020’은 ▷교육역량 강화 ▷인구구조변화 향상 ▷국제화 수준 제고 ▷재정인프라 확충 ▷경영 시스템 혁신 등을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이 10개년 계획은 첫 해부터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순항 중이다. 경주캠퍼스는 작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잘 가르치는 대학(ACE)’과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되어 향후 4년간 127억 원의 국고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앙일보가 실시하는 대학평가에서는 학생총원을 전국공동 1위, 국제화 부문 전국 13위, 취업률 전국 16위, 외국인 교수 비율 전국 6위, 영어강좌 비율 전국 17위 등의 성적을 받았다.

경주캠퍼스는 환경부의 저탄소 그린캠퍼스



IPTV 사업을 경북도와 공동추진하고 있으며, 실감미디어 산업 기반 구축 사업에도 선정됐다.



2012년 입학식 모습. 올해 232억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원호 인재장학금’도 신설했다.



아침 저녁 봄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전경. 개교 34주년을 맞은 경주캠퍼스는 ‘불교와 경주’의 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한 글로벌 시대의 융복합학문의 산실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특성화, 국제화, 융합화’ 등 3대 발전 전략을 축으로 ‘비전 2020’을 선포했다.

도다. 이외에도 토목사관학교를 통한 집중 영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일본 중국으로 산업체를 탐방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주캠퍼스의 정체성은 조계종 종립대학이라는 태생적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학내 구성원들은 “다른 대학들이 수도권 지역에 캠퍼스를 세울 때 동국대가 경주에 지방캠퍼스를 세운 것은 특별한 안목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실감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족의 전통종교로서의 불교와 경주라는 고도의 역사 문화적 바탕이 현대사회의 새로운 대안 창출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년 고도를 배경으로 미래의 천년을 가꾸는 교육도량이 경주캠퍼스인 셈이다.

교직원연구기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바이오융합연구원, 아시아연구원, 미래에너지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원, 미래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은 각각의 부설연구기관을 통해 독자적인 업적을 쌓으며 상호 융복합화 시너지를 형성해 가고 있다. 특히 불교사회문화연구소는 현대사회의 당면현안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진단하며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불교학의 확산과 포교의 동력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정신으로 역사와 문화적 토양을 현대사회의 지점으로 제시하는 경주캠퍼스만의 연구소도 적지 않다. 신라문화연구소, 인문학연구소, 불교조형디자인연구소, 문화예술디자인연구소, 동학연구소, 사찰조경연구소, 갈등치유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문화관광산업연구소 등이 해당된다. 의과대학과 양 한방 동시 진료기관인 동국대병원의 성장속도도 가속을 내고 있다.

경주캠퍼스가 작년에 지급한 장학금의 총액은 188억 원에 이른다. 학부생을 기준으로 1인당 165만 8000원, 350여 종의 교

내의 장학금이 미래인재 양성에 투자되고 있다. 졸업 동문들의 후원과 불교계 사찰과 불자들의 기부가 큰 힘을 얻고 있다. 올해의 지급 예정 장학금은 23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3%가 증액된 금액이다. 거기에 ‘원호인재장학금’을 신설, 우수인재 육성에 특별한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경주에 위치하면서도 전교생의 절반이

수도권 출신이다. 이에 따라 기숙사 시설에도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기숙사와 비구니 학인들의 기숙사인 ‘사라림’이 문을 열어 2000명(재학생 전체의 23%)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원호관 1층 유아교육학과 실습실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던 3학년 학생들에게 물었다.

“이 학교 좋은 것과 나쁜 것 좀 말해 주세요?” “좋은 건 취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유아교육학과나 불교아동학과는 경우 거의 100% 취업을 하는데, 커리큘럼은 물론이고 실습 공간 등 여러 조건들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쁜 점은... 없어요! 호호호” 경주=임연애 논설위원

“학문의 융복합화로 글로벌 시대 주도”

비전 2020 선포한 김영종 총장

“올해 우리 학교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두 건 치러집니다. 7월에 해외 교포2세 사업가들의 네트워크인 세계한국무역협회 세미나가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 20여명이 참가하여 교류하게 됩니다. 10월에는 경주에서 국제펜클럽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 오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4명이 우리 학교에서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도 강연을 듣게 됩니다.” 취임 1년을 맞은 김영종 경주캠퍼스 총장은 행적고시 출신이다. 누구 못지않게 두터운 실무 경험과 학문적 성과를 가지고 있다.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에 탁월한 기억력이 가세하여 경주캠퍼스의 비상(飛上)을 주도하고 있다. 7월과 10월에 열리는 두 행사는 무심히 지나치면 ‘남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을 김총장이 발 빠르게 움직여 ‘나의 일’로 만들어 낸 사례다. “불교대학으로서의 장점은 물론 기초 학문의 토대를 충분히 다지고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폭넓은 국제 교류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가는 것이 학교 발전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기초학문과 시설 및 장학금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경영 인프라도 갖춰져야 합니다. 경주캠퍼스는 명상과 참선 교육을 통해 윤리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전공에 들어가 깊고 넓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문을 융복합화 체계로 확산해 나가는 것도 주요한 임무로서 교양과목들도 전면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김총장은 취임과 더불어 ‘비전 2020’을 선포하며 서울캠퍼스와 분리된 경영구조에서 폭발적인 발전의 키워드들을 추출하여 첫 해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국제선센터 건립을 연말 준공 힐링센터 등 3대 전략사업

경주캠퍼스는 올 상반기 국제선센터를 착공 연말에 준공할 계획이다. 불교국제교육센터, 국제의료관광 양한방 협진 힐링센터 설립과 궤를 함께 하는 경주캠퍼스의 전략사업이다. 이 세 가지의 센터는 불교와 문화, 국제화, 관광, 의료 분야를 융복합화 하여 불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글로벌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승화시키게 된다.

약 500평의 건평에 3층 규모로 지어질 국제선센터는 참선과 명상, 교육, 요가, 선체조 등을 중심으로 하는 템플스테이 공간과 게스트 룸 등으로 꾸며지게 된다. 작년 8월 달라이라마가 김영종 총장에게 전해준 부처님 진신사리 5과를 중앙법당에 모시게 된다. 재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의 현장으로도 사용된다. 경주캠퍼스는 국제선센터 건립을 위해 그동안 24억 원을 모금했고 금년에도 모금 활동을 전개한다.



와불법당에 2만인승과 연등으로 법회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음지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성지순례를 와불법당 미암사로 오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시험합격, 사업변창, 학업성취, 자손득남, 운수대통, 무병장수



세계최대층진신사리탑
(33층)
진신사리 1과가 3과로 자연증과된 신비한 영험 33층 진신사리탑



신비한 쌀바위(미암사)
(중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세 부인이 자손을 얻게 해달라고 공을 드러서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소원 성취하였으며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노화가 방지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신진대사가 원활해 집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투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미얀마 성지순례

5/30, 6/1, 6/8, 6/14, 6/21, 6/23 **출발확정**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 요금문의

여행사 남녀 가이드 견습생 모집

- ◆ 해외 파견 견습생 2명
- ◆ 국내 연수 견습생 2명

◇ 서류제출 :
- 여권사진 부착 이력서 1통,
- 자기소개서 1통,
- 종단불문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1통.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불교성지전문여행사(주) 마하연투어
문의 : 02)365-7747

- 인도 성지순례 **9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하산 황산 **7일** 요금문의
-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